

창업정보는 이곳에서

# 창업강좌에 주부들 몰려

## 이색 유망외식사업강좌 · 소자본 창업세미나 등 다양

백화점 문화센터나 각 사회 단체에서 실시하는 창업강좌나 창업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 주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뜰에 박힌 직장생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일터를 갖기 원하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 전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창업 상담을 해주거나 정보를 주는 곳은 한국사업정보개발원이나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사업연구소가 있으며, 여성신문 교육문화원, 동아일보문화센터, 한국중앙부인회 등에서는 창업 강좌를 개설해 주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그동안 미용이나 제과, 홈패션 등의 교육을 수강한 주부 1천2

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0% 이상이 창업에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길 원한



미용·홈패션 등의 기술교육을 받은 주부들의 창업에 대한 열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다고 응답해와 조만간 창업관련 교육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성신문 교육문화원(02-512-3301)에서는 노인 전용 카페, 다이어트 음식점, 패밀

리 레스토랑 등 이색 유망 외식사업 강좌를 마련하여 유망 업종 소개, 본인 적성에 맞는

업종 선택, 장소선정, 인사관리와 경영관리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강의하고 있으며 5회 5만원으로 매주 월,화,수요일에 교육이 있다.

동아일보문화센터(02-781-0831)에서는 3개월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에 부동산 개발, 매매시기, 유망사업 및 관련 법규 등을 강의한다. 한국중앙부인회(02-928-2107)에서도 장소 선정, 세금처리, 업종 정보 등을 교육하는데 수강자의 대부분이 20대 중반에서 50대 후반의 여성이며 그동안 무료로 교육하던 것을 9월부터는 전문적인 내용을 좀더 보충하

여 유료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창업 관련 상담기관인 한국사업정보개발원(02-761-3511)에서는 소자본 중심의 창업정보, 자금 규모별 업종 선택, 적성에 맞는 업종 선택, 점포 위치 선정, 업종전환상담 등을 해주고 있다. 요즘에는 주로 30대 주부들의 창업상담 문의가 많고 젊은 여성의 경우 IP(Information Provider) 등과 같은 전문직에 대한 상담이 크게 늘고 있다. 상담료는 시간에 관계없이 1회에 3만원이다.

한국사업연구소(02-508-1787)는 PC통신을 통해 여성부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 ID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매직콜, 하이텔, 유니텔을 이용해 GO RDS로 들어가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7월 한달 동안 이용자가 3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생산성본부(02-734-6513)에서는 3주에 20만원인 창업자양성과정인 있으며 9월 16일, 17일에는 소자본 창업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회비 2만원.